

메이지 일본의 대조선 외교와 군사 기술, 1876-1882

김성근†

1. 서론

1876년 강화도조약은 오랜 시간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사의 중요한 사건이었다.¹ 이 조약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전통적 교린 외교의 복구라고 인식했던 것에 반해 일본 정부는 만국공법에 기초한 근대 외교의 시작으로 보았다.² 양국 정부 사이의 인식의 괴리는 강화도 조약이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대교린 질서가 근대 국제법 질서로 이행하기 시작한 상징적 사건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전통 외교의 부활이든, 근대 외교의 시작이든, 양국의 상황은 조선이 1811년 도쿠가와 막부에 마지막으로 통신사를 보냈던 당시와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즉, 일본은 막번(幕藩) 간의 내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skk313@jnu.ac.kr

1 강화도조약은 ‘조일수호조규’를 일컫는 명칭이지만, 사실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大朝鮮國 大日本國修好條規’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간략히 강화도조약으로 부르코자 한다.

2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지성사, 2001), 210쪽; 김수암, “1870년대 조선의 대일관: 교린질서와 만국공법질서의 충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권 1호 (2003), 5-29쪽; 岩方久彦, “1876년 수신사연구: 高宗의 舊好回復論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7집 (2007), 235-271쪽; 趙景達, 『近代朝鮮と日本』 (東京: 岩波書店, 2012), 46쪽.

전과 메이지 유신(1868)을 거치며 서양 군사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고, 조선 또한 프랑스, 미국 등 열강과의 두 차례에 걸친 무력 충돌을 통해 군사적 무장화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다. 강화도조약 이후의 조일 외교가 변화한 양국의 군사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조약 이후 조일의 외교 관계를 양국의 군사력과 군사 기술의 비교사적 이해 위에서 논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³

식민지에 대한 제국의 초기 침투와 정복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었다.⁴ 특히 19세기 동아시아에 수입된 서양의 군사 기술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외교 질서를 근거에서 뒤흔든 중요한 물리력이었다. 이 같은 시각 위에서 본고는 강화도조약 이후 18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양국 사이의 외교 관계를 군사 기술과의 관련 속에서 논하고 있다. 서양 제국주의의 신속한 학습을 통해 대륙 침략의 야망을 노골화한 일본의 대조선 외교와 식민지화는 일차적으로 정치·경제적 동기가 작동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단으로서의 군사 기술과 군사력이 없이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다. 그러나 메이지 초기의 일본은

3 강화도조약 이후의 조일관계에 대한 최신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윤소영, “朝日修好條規의 역사적 위치”, 『한일관계사연구』 18 (2003), 129-170쪽; 이근관, “조일수호조규(1876)의 제평가: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관점으로부터”, 『서울국제법연구』 11권 1호 (2004), 57-79쪽; 이태진, “1876년 강화도조약의 명암”, 『한국사 시민강좌』 36 (일조각, 2005); 김홍수, “일본의 강화도조약 인식의 변천과정”, 『공사논문집』 64권 1호 (2013), 21-41쪽; 山田昭次, “大朝鮮政策と條約改正問題”, 『近代の戦争と外交』 (東京: 東京堂出版, 2004), 44-66쪽; 諸洪一, “明治初期の朝鮮政策と江華島條約: 宮本小一を中心に”, 『札幌學院大學人文學會紀要』 81 (2007), 41-64쪽; 月脚達彦, “近代朝鮮の條約における‘平等’と‘不平等’: 日朝修好條規と朝米修好通商條約を中心に”, 『東アジア近代史』 13 (2010), 76-91쪽; 朴英一, 『條件反射論による近現代史解析』 (東京: 三省堂書店, 2011), 27-43쪽; 石田徹, 『近代移行期の日朝關係: 國交刷新をめぐる日朝雙方の論理』 (廣島: 溪水社, 2013); 諸洪一, “近代東アジアの黎明に關する一試論: 日米和親條約と日朝修好條規”, 『札幌學院大學人文學會紀要』 96 (2014), 1-30쪽.

4 제국주의와 기술의 관계를 다룬 대니얼 헤드릭의 연구는 ‘기술 제국주의(technological imperialism)’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Daniel R. Headrick, *The Tools of Empire: Technology and European Imperi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idem., *When Information Came of Age: Technology of Knowledge in the Age of Reason and Revolution, 1700-185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카를로 치폴라도 제국주의와 기술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Carlo M. Cipolla, *Guns, Sails, and Empir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Early Phases of European Expansion, 1400-1700* (New York: Pantheon Books, 1965).

포함 외교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조선 강압 외교를 밀고 나갈 만큼 군사력과 군사 기술이 압도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고민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여전히 군사 기술의 후발국에 있었던 메이지 초기의 일본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대조선 외교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본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필자는 2절에서 메이지 초기 일본의 군사 기술과 대조선 ‘포함 외교’의 특수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3절에서는 1880년대 초 ‘은위병행(恩威並行)’ 정책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일환으로 기획된 일본의 대조선 병기 원조를 분석할 것이다. 4절에서는 개항 이후 1882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조선 군사 기술 원조를 병기의 이전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정치 외교적 특수성을 논할 것이다.

국가 간의 외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양측 사료에 대한 쌍방향적 접근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의 대조선 외교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의 자료를 주로 이용할 것이다.

2. 메이지 일본의 군사 기술과 대조선 ‘포함 외교’의 특수성

1875년, 일본 군함 운양호는 강화도를 공략했다. 그 결과, 조선은 이듬해 일본과의 사이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에 서명했다. 그것은 1853년 6월 미 함대 사령관 매튜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1794-1858)의 흑선이 도쿠가와 일본 사회를 강타한 포함 외교의 모방으로 일컬어진다.⁵ ‘포함 외교’란 원래 분쟁 상태에 있는 일국이 타국에 함대를 파견하여 군사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유리한 조약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강화도조약은 페리의 포함 외교를 모방한 것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그것과 매우 다른 성격의 조약이었다. 페리의 포함 외교가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도달한 조약이었던 반면, 일본의 포함 외교는 1875년 강화도에서 벌어진 양측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직접적 계기로 했다.⁶ 아울러 페리의 대일본 개국과 일본의 대조선 개항은 둘

⁵ 森山茂徳, 『日韓併合』(東京: 吉川弘文館, 1995), 3쪽; 松本健一, 『開國・維新』(東京: 中央公論社, 1998), 71쪽.

⁶ 鈴木淳은 운양호 사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왔던 보고서는 일본 측이 서양 각국의 대사관에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면서 조선 측의

다 군사적 힘에 의한 결과물이었지만, 정작 포함 외교를 실행한 양국의 군사 기술과 군사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853년 6월 3일(음력), 에도 만(현재의 도쿄 만)에 네 척의 군함을 이끌고 나타난 페리 함대는 당시 세계 최대급 선단을 파시했다. 원정에 참여한 증기 군함은 당시 세계 최대급이었던 서스케하나 호(Susquehanna, 2,450톤)와 1839년에 진수한 미시시피 호(Mississippi, 1,692톤) 등으로, 이 군함들은 증기 기관이 배의 측면에 돌출되어 있는 외차형(外車型) 증기선들이었다. 나머지 두 척은 범선인 플리머스 호(Plymouth, 989톤)와 사라토가 호(Saratoga, 882톤)였다.⁷ 페리 함대를 직접 목격한 에도 시대의 병학자 사쿠마 쇼우잔(佐久間象山, 1811-1864)은 양측의 선박을 비교하며, 마치 “큰 대야 밑에 조개”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인들의 눈에 비친 페리 함대의 위용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⁸ 반면, 강화도를 포격한 운양호는 1870년 영국의 홀 러셀 사가 건조한 360톤급 포함으로, 당시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결코 대형 포함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⁹ 물론, 근대의 포함 외교는 군사력의 우위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과학사학자 파이언슨(Lewis Pyenson)이 지적하듯이, 근대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의 확보와 경영을 위해 직접적인 군사력과 더불어 제국의 지적 우월성을 상징하는 힘, 즉 과학을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¹⁰ 1854년 미일수호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을 재차 방문한 페리는 훗날 원정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비인도적 행위와 자신들의 무고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초의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 鈴木淳, “雲揚艦長井上良馨の明治八年九月二九日付け江華島事件報告書”, 『史學雜誌』 111권 12호 (2002), 1947-1957쪽.

⁷ 단, 여기서 말하는 서스케하나 호와 미시시피 호의 톤수는 배의 길이와 넓이만으로 계산되는 bm톤으로 이는 19세기 후반 무렵에 폐지되었다. 오늘날의 톤수(배수 톤수)로 환산하면 서스케하나 호는 3,824톤의 세계 최대급 대형 증기선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元綱義道, 『幕末の蒸氣船物語』 (東京: 成山堂書店, 2004), 17쪽을 참조.

⁸ 이에 대해서는 松本健一, 『開國・維新』, 10쪽을 참조.

⁹ 杉山伸也, 『明治維新とイギリス商人』 (東京: 岩波書店), 95쪽.

¹⁰ 루이스 파이언슨의 과학과 제국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Lewis Pyenson, *Cultural Imperialism and Exact Sciences: German Expansion Overseas, 1900-1930*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1985); idem., *Empire of Reason: Exact Science in Indonesia, 1850-1950* (Leiden: Brill Academic Pub, 1989); idem., *Civilizing Mission: Exact Science and French Overseas Expansion, 1830-1940*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등을 참조할 것.

이제 일본의 이사관들이 초대받을 차례였다. 역사(力士)들의 야만적인 공연 이후에 미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전신기와 증기 기관차를 선보였다. 일본의 관원들의 보기 흉한 공연에 비하면 그것은 수준 높은 문명이 보여주는 행복한 대조였다. 야만적이고 동물적인 힘을 공연한 그 장소에서 아직 계몽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과 기업의 성공에 의한 웅장한 체험의 기회가 주어졌다.¹¹

페리의 일기 속에서 자국의 과학기술 문명은 일본의 야만에 대한 지적 우월성의 지표에 다름 아니었다. 즉, 포함 외교는 군사적 우월성과 더불어 과학이라는 지적 우월성이라는 지표에 의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강화도조약 이듬해 조선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는 예조판서 조영하(趙寧夏, 1845-1884)에게 보낸 “유학생 파견에 관한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술(醫術), 기기(汽器), 군수(軍需), 측량(測量) 등에 있어서 다행히 약간의 진보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귀국이 이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전수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명예로운 일

¹¹ *Narrative of the Expedition of an American Squadron to the China Seas and Japan, performed in the years 1852, 1853, and 1854, under the Command of Commodore M.C. Perry, United States Navy, by order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ompiled from the Original Notes and Journals of Commodore Perry and his Officers, at his request, and under his supervision*, by Francis L. Hawks. D.D., L.L.D. (본 논문에서는 *The Expedition of an American Squadron*이라고 표기함). *The Expedition of an American Squadron*, p. 433. 일본 원정에서 돌아온 페리는 1856년 뉴욕에서 활동하던 목사 혹스(Francis L. Hawks)를 편집자로 고용하여 원정 중에 자신이 기록한 일기와 원정에 참여한 대원들의 일기, 보고서 등을 참조로 다음과 같은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공식 보고서에는 개항 당시 일본인들의 풍습과 조약 과정에 관한 흥미로운 삽화들이 들어있다. 이 보고서를 기초로 많은 축약판들도 출판되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Robert Tomes, *The Americans in Japan* (New York: D. Appleton, 1857); Religious Tract Society, ed., *Japan Opened* (London: Religious Tract Society, 1858); Sidney Wallach, ed., *Narrative of the Expedition*, with foreword by Rear Adm, John B. Heffernan (1954) 등이 있다. 그런데 애초에 *The Expedition of an American Squadron*을 출간할 당시, 편집자 혹스는 페리가 구술한 일기로부터 사적인 기록들은 배제하고 공적인 기록들만을 추출했다. 그런 점에서 페리 자신이 원정 중에 느낀 솔직한 감정과 경험들은 1968년에 출판된 그의 일기에서 접할 수 있다. Roger Pineau, ed., *The Japan Expedition 1852-1854: The Personal Journal of Commodore Matthew C. Perry*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1968).

이며, 귀국에 있어서도 외세를 방어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친절에서 나온 것입니다.¹²

일본이 의술, 기기, 군수, 측량 등 조선의 근대화를 원조하겠다는 이 서간은 일본이 조선에 비해 과학과 군사 기술에 있어 이미 우월하다는 자신감의 반영이었다. 일찍이 포함 외교의 피해자였던 일본은 이번에는 포함 외교의 가해자로서 군사적 힘과 더불어 그 지적 우월성의 지표를 활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일본은 조선의 군사적 근대화를 원조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것일까? 일본이 전통적 군사 기술의 한계를 인식한 것은 막말 유신기를 거치며 치른 몇 차례의 전투 경험을 통해서였다. 특히 막말기 두 차례에 걸친 대서양 무력 충돌, 즉 영국과 사쓰마 번(薩摩藩) 사이의 전투였던 사쓰마 이(薩英) 전쟁(1863), 그리고 영국·미국·독일·프랑스 등 4개국 연합 함대와 조슈 번(長州藩) 사이의 전투였던 시모노세키(下關) 전쟁(1864) 등은 종래의 채래식 병기와 전술이 근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었다.¹³ 비록 전투 결과는 양측에 비슷한 사상자를 냈고, 그것이 일부 번 내의 호전론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일본 측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지만, 전투 이후의 휴전 협상에서 사쓰마 번이 영국 측에 군함의 구입을 의뢰한 것은 서양 군사 기술의 우월함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¹⁴ 아울러 도쿠가와 막부의 붕괴를 이끈 신정부군과 구막부군 사이의 보신전쟁(戊辰戰爭, 1868-1869)에서도 서양식 병기의 유무는 승패를 가른 중요한 요인이었다.¹⁵

당시 서양식 근대 병기는 일본만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조선 정부도 프랑스 군과의 전투인 1866년 병인양요 이후, 증기 군함, 수뢰포 등 서양식 병기를 모방, 제작하려고 시도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¹⁶ 즉,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과 일

12 外務省 編纂 (外務省 藏版, 이하 동일), 『日本外交文書』 第10卷 (東京: 巖南堂書店, 1995), 307-308쪽.

13 薩英戰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公爵島津家編纂所 編, 『薩藩海軍史』 中 (東京: 原書房, 1968). 시모노세키 전쟁에 대해서는 末松謙澄, 『防長回天史』를 비롯, 下關市文書館 編, 『資料幕末馬關戰爭』 (1971), 『下關市史: 藩制 明治前期』 (1964), 徳見光三, 『長府藩報 國隊史』 (1966) 등을 참조.

14 『薩藩海軍史』 中, 655-656쪽.

15 高橋典幸 外, 『日本軍事史』 (東京: 吉川弘文館, 2006), 315쪽.

16 박성래, “대원군시대의 과학기술”, 『한국과학사학회지』 2권 1호(1980), 3-15쪽;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무기개발과 외국기술 도입”, 『학예지』 제9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2), 137-166쪽.

본은 서양 열강의 군대와 몇 차례의 전투를 치르면서 서양식 근대 병기의 확보가 향후의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다. 거기에는 물론 자체적으로 서양식 병기를 모방, 제작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막부와 번들은 메이지 유신 이전 이미 서양식 병기의 자체적인 개발 시도에서 사실상 실패를 경험했다.¹⁷ 서양식 근대 병기의 개발은 기술력은 물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철 생산 등 제반 공업적 설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례로, 소총의 자립화를 들 수 있다. 19세기 들어 개인 화기로서의 소총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살상력을 극대화시킨 병기들 중 하나였다.¹⁸ 메이지 신정부는 구막부의 군수 공장들을 확대 병합하여 오사카 포병공창(1879)과 도쿄 포병공창(1879)을 설립했고, 1880년에는 육군 소장 무라타 츠네요시(村田經芳, 1838-1921)가 일명 13년식 무라타 총으로 일컬어지는 근대적 소총의 자립화에 성공했다.¹⁹ 그러나 이 총은 총신 등의 제작을 벨기에에서 수입한 공장 기계에 의존했고, 서양의 소총을 모방한 탓에 일본인들의 체형에도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결함이 남아 있었다.²⁰ 이후 총기가 가진 결함을 꾸준히 개량하여 1885년에는 18년식 무라타 총, 1889년에는 22년식 무라타 연발총 등이 제작되었고, 이 총기들은 청일전쟁 당시 일본 육군에도 지급되었지만, 병사들 사이의 평판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한다.²¹

17 中岡哲郎, 『日本近代技術の形成』(東京: 朝日新聞社, 2006), 30쪽. 아울러 스즈키는 19세기 당시 재래식 병기와 서양식 근대 병기의 현저한 질적 차이로 인해, 막말·메이지 초기 일본의 국산 병기 제조 시도는 사실상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鈴木淳, 『明治の機械工業』(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96), 41쪽.

18 19세기 들어 발화장치는 종래의 화승식, 수석식에서 뇌관식으로 진화했고, 총신도 기존의 활강식에서 총신 안에 선조를 새겨 탄환에 회전을 거는 라이플식 총기가 보편화되었다. 19세기의 총기 발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Frederick Myatt, *The Illustrated Encyclopedia of 19th-Century Firearms: An Illustrated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World's Military Firearms during the 19th Century* (London: Salamander Books, 1979).

19 Kobayashi Ushisaburo, *Military Industries of Jap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22), pp. 30-38. 당시 두 포병공창은 무라타 총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적 소총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기에 이르러 오사카 포병공창은 결국 아시아 최대의 병기 공장으로서 성장한다.

20 浅川道夫, 『明治維新と陸軍創設』(東京: 錦正社, 2013), 286쪽.

21 木俣滋郎, 『陸軍兵器發達史』(東京: 光人社, 1999), 26쪽.

19세기 당시 최첨단 병기에 속했던 군함의 경우는 기술력에 있어서 서양 열강과 더 큰 격차가 있었다. 1870년대 당시 일본이 보유한 군함 중에서 52퍼센트가 영국산, 22퍼센트가 미국산, 그리고 18퍼센트가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었지만, 일본에서 자체 생산한 군함을 해전의 주력함으로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²² 이것은 서양식 근대 병기의 개발이 메이지 정부에서도 여전히 험난한 과제였음을 보여준다.

메이지 초기의 일본은 군사 기술은 물론 단순히 병력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과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는 1874년까지 예비 병력을 포함하여 약 1백 30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프랑스는 그것을 능가했다고 알려지는 반면, 일본은 1878년까지 지상군의 숫자가 약 4만 1천명에 불과했다.²³ 특히 메이지 일본의 군사력이 청국보다 우월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메이지 초기 일본의 위정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²⁴ 이 같은 대청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838-1922) 참의는 1882년 8월 ‘육해군 확장에 관한 재정 상신서’를 제출, 메이지 육해군의 시급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군사력이 단순히 병력의 수로 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1873년에 선포된 징병령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지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은 물론 기술력이 요구되는 병기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그것은 결국 자체 생산보다는 수입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⁵ 군함의 경우, 메이지 초기에 단 4척(3,416톤)이었던 것이 청일전쟁 직전에는 약 28척(5만7,600톤)까지 증가했지만, 주력함들은 여전히 영국 등지에서 구입한 것들이었다.²⁶ 소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880년 무라타 총 제작에 성공했던 일본 육군은 1879년과 1882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마르티니 총(Peabody Martini Rifle)을 1만 7천 정 가량 구입하는 등, 여전히 서양으로부터의 소총 수입은 육

²² Keith Krause, *Arms and the State: Patterns of Military Production and Tra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69.

²³ D. Eleanor Westney, “The Military,” in Marius Jansen and Gilbert Rozman, eds., *Japan in Transition: From Tokugawa to Meij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 183.

²⁴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 編, 『伊藤博文關係文書』(東京: 塙書房, 1973), 1882년 11월, 175-176쪽.

²⁵ 佐藤宏治, “海戰兵器”, 山田朗 編, 『戰爭Ⅱ』(東京: 青木書店, 2006), 56쪽; 淺川道夫, 『明治維新と陸軍創設』(東京: 錦正社, 2013), 286쪽.

²⁶ 藤原彰, 『日本軍事史 上卷 戰前篇』(東京: 社會批評社, 2006), 121쪽.

군력 증강의 주된 방향이었다.²⁷

즉, 메이지 초기의 일본은 막말의 내전을 거치며 상당한 양의 서양식 병기를 확보했지만, 그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할만한 기술력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메이지 초기 일본은 군사 기술에 있어 대조선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후발국으로서의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포함 외교 이후 일본이 조선에의 과학기술 및 군사적 근대화의 원조를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이 실제로 조선에 제공할 수 있었던 기술적 원조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3. 1880년대 초 일본의 대조선 무기 원조와 ‘은위병행’ 정책

19세기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는 흔히 압도적 군사력에 기반을 둔 천연 자원의 개발, 상품의 대량 판매 시장을 노린 경제적 제국주의로 규정된다.²⁸ 그러나 포함 외교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을까? 야마다는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외면적으로는 강경하게 위력으로 압박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무력 충돌의 회피가 기본선이었다”고 분석했다.²⁹ 메이지 초기 대조선 외교의 강경론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대체로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1825-1883)와 함께 메이지 초기 일본의 대외 정책에 영향력이 깊었던 오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 1830-1878)는 강화도조약 직전 정한론이 제기되었을 때, 일본은 당장 재정난으로 외정을 일으킬 경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전을 틈타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 어부지리를 취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것에 반대했다.³⁰ 정한론 주장의 정치적 의도는 배제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선 정벌을

²⁷ 陸軍省, 『兵器沿革史 第一輯』(陸軍省, 1923), 124-126쪽.

²⁸ David G. Wittner, *Technology and the Culture of Progress in Meiji Japan* (London: Routledge, 2008), p. 112.

²⁹ 山田昭次, “對朝鮮政策と條約改正問題”, 山田朗・小田部雄次 編, 『近代の戦争と外交』(東京: 東京堂出版, 2004), 48쪽.

³⁰ 徳富猪一郎, 『征韓論 後篇』(近世日本國民史刊行會, 1961), 185쪽; 勝田孫彌, 『大久保利通傳』下(東京: 同文館, 1925), 120-126쪽.

주장했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 이타가키 타이스케(板垣退助, 1837-1919), 고토 쇼우지로(後藤象二郎, 1838-1897), 에토 신페이(江藤新平, 1834-1874), 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種臣, 1828-1905) 등에 맞서 당시 미국에서 불평등조약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던 오오쿠보는 물론, 이와쿠라, 키도 다카요시(木戸孝允, 1833-1877) 등도 정한에 반대했다.³¹ 그러나 후루카와(古川)의 지적대로, 정한의 지지파도 반대파도 기본적으로는 정한이 일본의 국내외 사정상 시기상조라는 것에 불일치의 주된 근거가 있었을 뿐, 정한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³² 이 같은 상황에서는 조선을 일단 일본의 영향력 아래 어떻게 묶어둘 것인가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그것은 군사 기술을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위압적 수단이 아니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츠카하라 토고(塚原東吾)는 동아시아의 근대화란 서양에 대한 배척이자 적대임과 동시에 그 적대자(서양)에게 자기를 동화시키고자 하는 매우 고등한 레벨의 모순적 작업이었다고 지적했다.³³ 그것은 근대화의 파도 속에서 동아시아인들이 겪안을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모순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 근대화의 과정이 이렇게 서양 문명에 대한 모순적 감정과 태도의 연속이었다면, 그 중에서도 군사 기술이야말로 그 정점에 위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말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대조선 군사 기술의 비교우위를 확인한 일본은 대조선 외교에 있어 그 점을 적극 활용했다. 본 장에서는 1880년대 초 일본의 대조선 외교 전략이었던 ‘은위병행’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이 대조선 외교 과정에서 군사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876년 강화도조약은 조선의 개항장, 일본 공사의 한양 주재, 조선 국내의 일본인 여행, 그리고 관세의 교섭 등을 둘러싼 양국 사이의 외교적 현안을 남겨 두고 있었다. 그러나 운양호의 무력적 침탈로 인해 조선 측의 태도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개항 이후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1880년대의 일이었다.³⁴ 당시 대조선 외교 라인의 중추는 외무경 이노우에 카

31 정한론의 본질은 메이지 신정부 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 투쟁이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梅野福壽, 『韓國併合』(東京: 岩波書店, 1995), 11쪽 참조.

32 古川万太郎, 『近代日本の大陸政策』(東京: 東京書籍, 1991), 113쪽.

33 塚原東吾, “知的優位性のエコノミックスとしての科學, そして記憶のポリティックスとしての歴史: 科學と帝國主義という觀點から見た近代日本の科學”, 『科學技術のゆくえ』(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99), 107쪽.

오루(井上馨, 1835-1915)와 조선 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였다. 조일 간의 외교적 현안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관찰시키고자 했던 것은 강화도조약의 제 5조에서 정한 대로 부산 이외에 두 곳에 개항장을 설치하는 문제였다. 일본이 원한 곳은 원산과 인천으로, 특히 한양과 가까운 인천의 개항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에 맞서 조선은 원산의 개항은 허가하면서도 인천 대신 군산이나 목포의 개항을 제안했다. 일본 측에서는 개항지를 둘러싼 이 같은 첨예한 대립을 어떻게든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일본 정부가 계획한 것이 총기 및 군함의 제공이었다. 1880년 1월 이노우에 외무경은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1825-1883) 우대신(右大臣)에게 보낸 서간 속에서 “금년 파견 시에는 (조선 정부에) 총기 또는 군함을 제공한다면, 장래 교제 상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³⁵ 이 같은 이노우에의 제안은 당시 조선 외교의 실무를 담당하던 하나부사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하나부사는 “금년 조선으로 출사할 때는 우리의 호의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한 뒤, 그러기 위해서는 “군국 필요의 기구(器具)를 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즉, 강화도 조약 이후 수차례 조선을 방문했던 하나부사는 당시 조선 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근대적 병기, 그 중에서도 군함 및 총기류라는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따라서 대소포와 탄약, 또는 소형의 증기선 한 척을 기증한다면, 조선 정부의 환심을 살 수 있고, 대조선 협상에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기 제공은 조선 정부를 ‘회유’함으로써 당면 외교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것으로 일본의 대조선 외교가 유효책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³⁶ 2월 14일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1837-1891) 태정대신(太政大臣)에게 보낸 이노우에의 서간은 하나부사를 경성에 보낼 때 종래와 동일하게 호위함을 파견하고, 작년처럼 엄중하게 협상에 임하여 빠른 성공을 거둘

34 堀雅昭, 『井上馨』(福岡: 弦書房, 2013), 116쪽.

35 『日本外交文書』第13卷, 418쪽.

36 高橋秀直는 일본이 80년대 들어 총기 등을 조선에 제공한 것은 일본의 대조선 외교정책이 ‘군사적 위압정책’으로부터 ‘친일화 정책’으로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高橋秀直, “壬午事變と明治政府: 江華條約より壬午事變までの朝鮮政策の展開”, 『歴史學研究』 601 (1989), 1-17쪽. 반면, 布和는 80년대 들어 일본의 대조선 외교정책은 여전히 군사적 위압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布和, “1880年代初期の日本の對朝鮮外交: 壬午事變までの時期を中心に”, 『櫻花學園大學人文學部研究紀要』 7 (2005), 61-73쪽.

것을 주문했다. 이노우에는 이 같은 전략을 “은위병행”의 외교 전략으로 이해했다.³⁷ 여기서 군함과 총기의 제공이 ‘은(恩)’이라면, 종래와 마찬가지로 조선 측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위(威)’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이노우에의 외교 방침은 해군성에 즉시 전달되었다.

1880년 당시 하나부사의 조선 파견에는 개항지를 둘러싼 문제 외에도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이노우에의 훈조안(訓條案)에 따르면, 한성에의 공사관 설치, 그리고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 등이 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조선 측의 양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었다. 일본의 의도대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제공할 병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는 다음과 같은 쓰고 있다. 즉, 이번에 일본 정부가 조선에 군함과 총기를 보내는 것은 “개진론자(改進黨者)들의 마음을 얻고,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함선과 총기가 이처럼 뛰어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주전론자(主戰論者)들의 완강함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했다. 아울러 이번 병기의 제공을 조선에 대한 “군정변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⁸ 다시 말해, 조선 내에서 대표적 주전론자인 위정척사파를 물리치고 개진론자들인 개화파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이노우에의 의도였던 것이다. 물론, 일본이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조선에 제공할 병기도 상황에 따라 조절될 필요가 있었다. 즉, 총기류는 하나부사의 방문 시에 전달하지만, 군함은 훗날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기로 유보하고, 일단 제공할 목록에는 기입하도록 지시했다. 그 밖에도 훈조안은 일본 사신을 조선으로 호송할 때, 군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신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군함과 총기의 제공과 병행하여 일본 정부의 대조선 외교 전략인 ‘은위병행’의 뜻에 적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나부사의 조선 방문은 그 전에 조선 정부가 김홍집을 대표로 한 제2차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함으로써 일단 연기되었다.

1) 은(恩)의 외교와 조선에 제공된 총기들

김홍집이 조선으로 귀국한 뒤, 1880년 11월 하나부사도 조선으로 건너왔다. 인친의 개항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던 그는 ‘은위병행’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정

37 『日本外交文書』 第13卷, 419쪽.

38 『日本外交文書』 第13卷, 422쪽.

부에 제공할 총기를 지참하고 있었다. 그러면 당시 조선 측에 제공된 총기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10월 25일 이노우에 외무경이 산조 사네토미 태정대신에게 보낸 서간 속에는 육군성과 협의를 거쳐 조선측에 보낼 총기 목록이 나온다.

표 1. 1880년 일본이 조선 정부에 제공한 총기 목록 (출처: 『日本外交文書』 第13卷, 428쪽.)

품목	수량	품목	수량
16연발 헨리 총(Henry rifle)	5정(挺)	동제실포(銅製實包)	100발(發)
기병 촌나 총	5정	지제실포(紙製實包)	100발
포병 윌슨 총(Wilson rifle)	5정	동제실포(銅製實包), 뇌관(雷管共)	100발
뇌관식 스타 총(Starr carbine)	5정	포제실포(布製實包), 뇌관(雷管共)	100발
기병 레카르즈 총 ³⁹	5정	지제실포(紙製實包), 뇌관(雷管共)	100발
기병 샤즈르 총	5정	포제실포(布製實包), 뇌관(雷管共)	100발
소구경 레밍턴 총(Remington)	5정	동제실포(銅製實包)	100발
一番形蟹目打 피스톨 총	5정	동제실포(銅製實包)	100발
스나이더 총(Snider)	5정	동제실포(銅製實包)	100발
엔필드 총(Enfield rifle)	5정	지제실포(紙製實包), 뇌관(雷管共)	100발

당시 조선에 보낸 총기는 메이지 육군성이 소유한 것들로, 실상은 모두 서양에서 수입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연발총인 헨리 총은 미국에서, 엔필드 총은 영국의 엔필드 병기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특히 엔필드 총은 막말의 내전이 일본에 막대한 양이 수입된 총으로, 1870년에는 메이지 육군이 보병 총으로 채택하기도 한 총이었다.⁴⁰ 실례로 메이지 5년(1872) 신정부가 민간이 소유한 총기의 수거령을 내렸을 때, 수거된 18만 여정의 소총 중 약 5만 3천 여정이 엔필드 총이었던 것으로 보고된다.⁴¹ 스나이더 총은 영국 엔필드 병기 공

39 막말·유신기의 문헌에서 ‘레카르즈 총’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프랑스어의 가볍다(légerére)를 의미하는 용어의 일본어 발음을 ‘레카르즈’로 쓴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 추정이 맞다면 ‘레카르즈 총’은 경량의 기병 총으로 파악된다.

40 Kobayashi, *Military Industries of Japan*, p. 39.

41 南坊平造, “明治維新全國諸藩の鐵砲戰力”, 『軍事史學』 13卷 1號 (1977)을 참조.

장에서 전장식 엔필드 총을 후장식으로 개조한 것으로, 1866년 영국 육군이 제식에 채용했고, 일본에서도 메이지 육군이 ‘30년식 보병총’을 채택하기 전까지 제식에 사용하던 총이었다.⁴²

1880년 12월 30일, 하나부사는 조선 예조판서 윤자승(尹滋承) 앞으로 총기 목록과 간단한 서신을 보냈고, 윤자승은 이에 대한 감사의 답신을 보냈다. 경성의 일본 공사관에 도착한 총기들은 김기두(金箕斗)가 내관하여 이듬해 별기군의 교관이 된 호리모토 육군 소위로부터 사용법 등을 익혔다. 하나부사는 1881년 1월 6일자로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보낸 서간 안에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총기가 “소수이기 때문에 당장 군용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조선 정부는 우리가 준비한 친절함에 감사하고 있음이 답서에도 보이듯이 충분히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⁴³ 즉, 총기의 제공을 통해 조선 정부의 환심을 끌어내려던 당초의 의도가 일단 성공적이었음을 평가한 것이다.

2) 위(威)의 외교와 인천 개항 교섭

일본의 총기 원조는 조선에 ‘은(恩)’을 베풀으로써 당면 외교적 협상은 물론 앞으로의 외교에서도 조선 측의 호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예조판서 윤자승에게 총기의 목록과 서신을 보낸 다음날 하나부사는 윤자승 앞으로 차차 서신을 보내 인천 개항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다. 하지만 순조로울 것 같았던 교섭은 그 실무가 예조판서를 대신하여 예조참판 김홍집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일본 측으로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난관에 부딪혔다. 1881년 1월 4일 김홍집과 하나부사 사이에서 시작된 교섭은 하루라도 빨리 인천 개항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일본 측에 맞서 인천 대신 다른 항구를 제안하고, 만약에 인천을 개항하더라도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조선 측의 의지가 격렬하게 충돌한 과정이었다.

첫날의 협상에서 종래대로 인천의 개항을 요구하는 하나부사에 대해 김홍집은 “인천 개항은 전년부터 귀국 정부가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민심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정부에서 협의하여 이미 각하(閣下)에게 거절했고, 또 제가 지난번 동경에 갔을 때도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원하

⁴² 30년식 보병총은 육군 중장 아리사카 나리아키라(有坂成章, 1852-1915)가 1897년에 개발한 5연발의 국산 보병총으로, 러일전쟁 당시 일본 육군의 주력 소총으로 채용되었다.

⁴³ 『日本外交文書』 第14卷, 327쪽.

는 대로 삼남(三南) 및 남양교동(南陽喬桐) 안에 적절한 땅을 선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인천을 들먹이니 아주 난처할 뿐입니다”라고 완곡히 거절했다. 1월 8일의 교섭에서도 김홍집은 조선 정부가 인천 개항을 불허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하나부사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을 거론하는 한편, 조선과의 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흘리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홍집은 “왜 만리외방(萬里外邦)에서 일어난 전쟁을 들먹일 필요가 있는가?”라며 차갑게 응수했다.⁴⁴ 하지만 하나부사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김홍집은 중의(衆議)에서 다시 한번 인천 개항 문제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1월 24일의 교섭에서 김홍집은 조선 정부가 인천 개항을 양보할 의사가 있지만, 개항까지는 5년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일본 공사관은 일본 측의 주장대로 한양이 아니라 한양과 가까운 인천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5년 유예의 인천 개항에 대해 하나부사는 15개월 이내의 개항을 주장했고, 개항 준비를 위해 인천에 공사가 채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양에도 역시 공사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음날인 1월 25일의 교섭에서 김홍집은 개항 유예 기간을 5년에서 3년, 혹은 30개월로 양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하나부사는 20개월 이상의 연기는 불가하다고 고집했다. 그리고 자신은 양국의 교제를 위해서는 조선 국왕과도 즉시 만나 협의할 책임이 있으니, 우선 영의정과 만나 답판을 짓겠다고 김홍집을 압박했다. 김홍집은 다음날 조선 정부 내에 인천 개항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 수가 소수이고, 지금 즉시 개항하면 성난 민심에 의해 격변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개항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영의정과의 만남은 유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1월 28일의 교섭에서 김홍집은 지금 즉시 인천을 개항하는 것은 정변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점도 개항 연기의 이유라고 말했다. 하나부사는 20개월까지 양보했는데, 다시 수년간의 연기를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김홍집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하나부사는 2월 2일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보낸 서간 속에는 조선 측이 인천 개항 문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위압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조선이 저렇게 고집한다면, “강경의 수단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그 땅을 점거하고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

44 『日本外交文書』第14卷, 334쪽.

했다.⁴⁵ 그러나 그 같은 위압의 수단은 일단 유보되었고, 2월 8일의 회담에서는 조선의 군사적 근대화와 관련된 7조약안을 제시했다.⁴⁶

1. 일본과 조선은 국토가 인접하여 입술과 치아가 서로 보호하듯 이치와 형세로 보아 당연하다. 만약 이후 조선이 타국으로부터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 일본 정부는 반드시 서로 돕고 또 좋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 중재하겠다.
2. 일본 정부가 서로 돕고 조치하기 위해서는 조선 연해에 해군을 파견하여 주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부산포 절영도(絶影島)를 주둔지로 쓰고 싶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선 정부가 파견하는 해군 생도들을 교육하는 데도 편리할 것이다.
3. 일본 군함이 항해 중에 조선 선박을 만나면, 반드시 보호에 힘쓰고 친목을 도모할 것이다.
4. 조선 선박이나 사민(士民)이 외국에 도착하면, 그 땅에 주둔한 일본 영사가 각국과의 정규(定規)에 따라 우의와 친목을 다지기 위해 힘써 보호하겠다.
5. 조선 정부가 향후 해군과 육군의 군제를 확장하고 각종 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교사와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면, 일본 정부는 이들을 추천하도록 하겠다.
6. 조선 정부가 군사, 공업 등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생도들을 파견할 필요가 있어서 이들을 우선 보낼 경우, 일본 정부는 적당한 학교에 보내어 열심히 공부시키도록 하겠다. 학자금에 필요할 경우 내외 구분 없이 우리나라의 연수생들과 동등하게 하겠다.
7. 조선 정부가 총포와 선함 등을 필요로 한다면, 일본 정부가 주선하는데, 일본 정부가 구입하는 가격과 동일한 값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7조약안은 대부분 육해군의 창설과 군사 교육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조약안에 대해서는 일본 측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월 20일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 하나부사는 “제2조를 제외하면 다른 6개조는 모두 우리(일본)가 보호 또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므로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은 없는 무익한 조약이라는 논(論)도 있다”고 언급하여, 그 조약안이 조선에만 득이 될 뿐 일본은 얻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불러왔음을 인정했다.⁴⁷ 그러나 하나부사에 따르면, 그것은 ‘은위병행’의 외교를 정확하게 이

45 『日本外交文書』 第14卷, 332쪽.

46 『日本外交文書』 第14卷, 300쪽.

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즉, ‘은’의 외교이든, ‘위’의 외교이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하나부사는 “우리가 조선을 도와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얼마간의 보호(保護)와 약간의 교육을 제공하여 도와 그 국정의 기축(機軸)과 외교의 방략(方略)에 간섭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절대 타국(他國)에 종속되지 않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각하의 정견이자 곧 본인의 따르는 바”라고 말하고 있다. 즉, 조약안의 실질적인 의도는 일본이 조선의 군사적 근대화에 개입함으로써 조선을 타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부사가 말하는 ‘타국’이란 청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의 군사적 근대화에 대한 지원은 결국 조선이 청국의 영향력 안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부사가 이노우에 외무경에게 보낸 2월 10일자 서신에는 이 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 있다. 즉, 하나부사는 만약 조선이 7조약안과 같은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본은 조선이 타국의 용마(戎馬)에 유린되도록 방치하다가 자신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으며, 스스로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다”라고 쓰고 있다.⁴⁸ 2월 18일의 제5차 교섭에서 하나부사가 제시한 7개조에 대한 영의정의 답신은 제2조의 절영도의 일본 해군기지 건설은 민심을 불안하게 하고 조선에 아직 해군 생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제6조는 학자금 부분만 삭제하여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감감사사(感感謝謝)하다”는 내용이었다.⁴⁹ 2월 25일과 28일의 교섭을 거쳐 김홍집은 그 해 음력 2월부터 20개월이 되는 이듬해 9월에 인천을 개항할 것을 수락함으로써 일본의 요구는 마침내 최종적으로 수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강원도 원산(80년 5월 1일)과 인천(82년 9월)을 일본에 개항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은위병행’ 정책은 협상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조선 측의 대대적인 양보를 얻어낸 채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47 『日本外交文書』 第14卷, 351쪽.

48 『日本外交文書』 第14卷, 346쪽.

49 『日本外交文書』 第14卷, 352쪽.

4. ‘국제적 병기의 순환 시장’과 조일의 군사 기술

19세기 서양의 제국주의는 근대의 기술 혁신, 그 중에서도 군함과 대포를 위시한 군사 기술의 힘을 빌려 식민지를 획득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근래 ‘과학 제국주의’의 연구 프로그램은 반드시 실용적일 것 같지 않은 정밀 과학 혹은 순수 과학조차도 사실은 제국의 이데올로기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⁵⁰ 그런데 19세기 일본의 제국주의적 진화 과정은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와는 분명 성격을 달리했다. 사사키(佐々木)가 메이지 일본의 특수한 성격을 ‘과학 제국주의의 에이전트’로 규정했듯이, 메이지 일본은 서양 열강으로부터 과학기술을 학습함과 동시에 조선, 대만 등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서양 열강의 과학기술을 재활용함으로써 제국주의로의 진화를 이루었던 것이다.⁵¹ 메이지 일본의 과학기술이 지닌 이 같은 샌드위치적 성격은 군사 기술의 측면에서도 말해질 수 있다.

19세기는 세계적으로 군사 기술이 급진전된 시대였다. 특히 소총, 군함 등을 비롯한 근대적 병기들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종래의 병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신식 병기는 하루가 다르게 제작되었고,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다. 제국주의 세력이 세계 도처에 펼쳐놓은 전장은 새로운 병기들의 시험 무대에 다름 아니었다. 아울러 살상력을 높인 새로운 병기가 전쟁에 투입되면, 종래의 병기들은 전선에서 방출되었고, 그 병기들은 또 다른 전장을 찾아 무기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제국주의의 팽창과 더불어 국제적 병기의 순환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일본의 개항장에서 거래된 총기는 대부분이 이 같은 종류의 구식 총기들이었다.⁵² 메이지 유신 직전에 발발한 막번 간의 내전은 일본을 그 같은 중고 병기 시장의 가장 중요한

50 이에 대해서는 각주 10의 파이엔슨의 연구들을 참조.

51 佐々木力, 『科學技術と現代政治』(東京: 筑摩書房, 2000), 78쪽. 사사키는 이 밖에도 과학과 제국주의에 관한 일본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蓮實重彦・山内昌之 編, 『文明の衝突か共存か』(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의 제2장 “文化帝國主義と近代科學技術”을 참조할 것. 한편, 梅溪昇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교사는 메이지 유신(1868)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1874년에는 524명, 이듬해에는 527명으로 최대치에 이르렀다. 梅溪昇, 『お雇い外國人』(東京: 講談社, 2007), 222쪽. 외국인 교사들에 대한 의존에서 일본이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서양으로 떠났던 일본인 유학생들의 본격적인 귀국이 시작된 1890년대 전후였다.

52 横井勝彦, 『大英帝國の死の商人』(東京: 講談社, 1997), 21쪽.

고객으로 만들었다.⁵³ 결과적으로 메이지 일본은 그 중고 병기들을 조선에 대한 ‘위압’과 ‘호의’의 이중적 수단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아래 표는 1876년부터 1882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조선으로 유입된 병기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1876-1882년까지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유입된 병기류

연도	병기의 종류	유입 경위
1876	회선포 및 각종 총기류 [『승정원일기』 고종13년 2월 6일조]	강화도 조약 당시 일본 정부의 기증
	염산과 질산(雲龍水・龍吐天龍水), 철포와 기계의 추형(雛形), 아연 [일본외무성 편, 『航韓必携』 권6, 6월 15, 16일조]	김용원이 1차 수신 사로 갔을 때 구입
1877	왜총(倭銃)과 화약 1,000여 근 [『승정원일기』 고종14년 8월 4일조]	홍우창 구입
1878	12 扨 구포(臼砲) 1정(挺)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 A01000055300, 太政類典 第三編 明治11-12年 제19권 (國立公文書館)]	조선 정부의 주문
1880	10여 종의 총기와 탄약들 [『일본외교문서』 第13卷, 428쪽]	일본 정부의 기증
1881	레밍턴총 등 각종 병기류 [JACAR: C04030116000 (陸軍省大日記)]	조선 정부의 의뢰
1882	소증기선 한 척, 산포(山砲) 2문(門), 견마(牽馬) [JACAR: A03023613200 (國立公文書館)]	순종의 세자 관례식에 대한 진상품

당시 어떤 병기들이 조선에 유입되었는지는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왜총’이라는 기록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총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개항 이후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네진 병기들은 거의 대부분 서양의 병기들이었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조약 당시 조일 협상에서 군사력과 군사 기술에 대한 일본 측의 과시는 곳곳에서 엿보인다.⁵⁴

⁵³ 김성근, “19세기 중엽 일본의 정치적 변동과 군사 기술의 변화: 내전과 소총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0권 2호 (2008), 441-473쪽.

⁵⁴ 일미화친조약의 체결 당시, 미국은 일본의 근해에 군함 50척이 대기하고 있다는 과장을 일삼았다. 페리의 공식 기록과 개인 일기에도 없는 이 내용은 당시의 막부 측의 기록에 남

1876년 조일수호조약의 체결을 앞두고 전권대신 쿠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1840-1900)의 수행원으로 온 외무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코이치(宮本小一, 1836-1916)는 조선의 사역원 당상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이 기선(氣船) 및 군선(軍船)이 현재 일본에 몇 척이나 있는지를 묻자, “일본형은 수만 척, 서양형은 3백 척 정도”라고 답하고, 증기 기관차, 전신기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뒤, “귀국도 증기선을 만들어 텐진(天津) 등에 통행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다.⁵⁵ 강화도 조약 당시 일본 측의 제안서에도 근대적 병기 제작에 대한 과장이 엿보인다. 제안서는 “일본의 무기와 농기는 ‘천하의 으뜸’인데, 귀국에서 살 뜻이 있거나 장인(匠人)을 보내어 본떠 만들고자 한다면 모두 힘껏 주선할 것이고, 그 묘법(妙法)을 알아서 귀국에서 행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보람을 거두는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⁵⁶ 군사 기술에 대한 이 같은 일본 측의 과장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조선 정부가 메이지 초기의 일본의 군사력과 군사 기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이다.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 후, 전권대신 신현이 국왕 고종에게 조약의 과정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고종은 일본 측의 진헌품들 중에 서양의 물건은 없었는지 묻고 있다. 당시 일본이 조선 국왕 앞으로 보낸 진헌품들은 회선포(回旋砲) 1문(門)과 탄약(彈藥) 2,000발(發), 전차(前車) 1량(輛), 육연단총(六連短銃) 1정(挺)과 탄약 100발, 칠연총(七連銃) 2정과 탄약 200발, 비추(緋縐) 2필(疋), 백추(白縐) 2필, 수진장금시진표(袖珍裝金時辰表) 1개와 금련(金鍊) 1조(條), 청우침(晴雨鍼) 1개, 자침(磁鍼) 1개로 기록되어 있다.⁵⁷ 이중에서도 병기들, 즉 회선포(개틀링 총)를 비롯하여 육연단총, 칠연총 등의 연발총은 당시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사실상 제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모두 서양에서 수입한 것들이었다.⁵⁸ 이에 대해서는 신현도 진헌품들 중에서 병기에 새겨진 서양 글자들을 보

아있다. 『大日本古文書 幕末外國關係文書』 제5권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2), 68쪽 참조. 이것은 강화도 조약 당시 실제보다 병력을 크게 과장한 일본 측의 전략과 흡사하다. 신현, 『심행일기』 (푸른역사, 2010), 78쪽.

⁵⁵ 『日本外交文書』 第9卷, 37쪽.

⁵⁶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2월 6일조.

⁵⁷ 『고종실록』, 고종 13년 2월 4일조.

⁵⁸ 田保橋潔는 그 병기들이 일본의 포병공장에서 제조한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그것은 당시 일본의 병기 자립화를 생각할 때 근거가 빈약하다.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747쪽.

고, 일본 측에 그 연유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일본 측은 그 병기들은 서양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제조된 것이고, 서양 글자는 제조할 때 서양 기술자들을 많이 고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⁵⁹ 군사 기술의 자립화에 있어 당시 국제적으로 여전히 후발국에 머물러 있던 메이지 일본의 관료가 포함 외교 당시 자국 군사 기술의 한계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조선 정부 또한 메이지 일본의 군사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륜선(증기선)의 제작에 대해 묻는 고종에 대해 신현은 그것을 본 적이 없고, 단지 문자 상으로만 대략 그 제조법을 봤기 때문에 상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⁶⁰ 또 그는 고종에게 일본의 병기가 매우 정예(精銳)하고 대량으로 생산되며 가격 또한 저렴하다고 들었으므로, 일본에 사절을 파견하여 병기 제조와 일본의 개화를 시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⁶¹ 일찍이 병조판서, 총융사, 훈련대장 등 조선 후기 국방의 요직을 역임했던 신현조차도, 당시 일본의 군사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회답에 나선 일본 측 관료들은 자국의 군사력과 군사 기술에 대해 정치적 수사와 과장을 섞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인들이 직접 일본의 군사 기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강화도조약 이후 파견된 수신사들을 통해서였다. 1876년 5월 김기수를 단장으로 한 수신사는 일본에 건너가 박물관, 조폐국을 비롯, 히비야 연병소(日比谷練兵所), 육군성의 병학료(兵學寮), 근위병영(近衛兵營), 포병본창(砲兵本廠) 등 군사 시설들을 시찰하고 귀국했다. 김기수는 훗날 자신의 견문을 기록으로 남긴 『일동기유(日東記遊)』에서 증기선, 전신, 기차 등 일본의 근대화된 공업 시설들은 물론 새로운 문물과 제도 등에 대해서도 놀라움과 감탄을 쏟아내고 있다.⁶² 1880년 제 2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집도 고종에게 일본의 군사적 동향

59 신현, 『심행일기』, 311쪽. 『승정원일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 노무라의 답변은 병기들이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것이고, “양자호는 기계를 만들 때에 서양의 장인을 많이 쓰므로 표지가 이렇다. 귀국에서 혹 물리친다면 실로 귀국하여 아릴 말이 없거니와, 사신이 나갔으므로 또한 어찌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고종 13년 2월 6일조. 그러나 일본측의 기록은 약간 다르다. 즉, 노무라는 병기가 일본제인지 서양제인지 자신은 잘 모르지만, 일본의 화폐에 서양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은 화폐를 서양에서도 유통시키기 위한 것이듯, 대포도 마찬가지이고, 또 제조상 서양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절단면 등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日本外交文書』 第9卷, 129쪽.

60 신현, 『심행일기』, 311쪽.

61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 559쪽.

과 함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적 근대화의 실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⁶³ 더불어 그가 귀국하면서 가져온 황준현의 『조선책략』은 조선의 개방과 근대화의 필요성을 촉발시켰고, 그 결과 조선 정부는 1881년 일본의 문명개화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의 시찰단을 파견하기에 이른다.⁶⁴

그러나 이 같은 개방 정책은 조선 정부로 하여금 근대적 병기의 자립화가 지닌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게 만들었다. 메이지 일본의 군사적 근대화에 놀라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위협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조선이 당시 근대적 병기 제조를 위해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학습지는 청국이었다.⁶⁵ 1881년 11월 텐진의 기기창(機器廠)에는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이 이끄는 총 38명의 기술 유학생이 영선사(領選使)라는 이름으로 파견되었다.⁶⁶ 주목적은 군械학조(軍械學造), 즉 병기 제조 기술의 습득이었다. 김윤식은 의주에서 국왕 고종에게 보낸 상소 안에서 작금의 현실은 군사를 양성하고 선박을 움직여 함종연횡하고, 그 병력으로 서로 겨루어 그 법률로 서로 대항하는 것이 천하에 가득한데, 이러한 시대에 문호를 닫고 편하게 세계의 정세를 모른 채 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조선이 “외국의 모욕을 막으려면, 반드시 먼저 군사를 훈련시켜야 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려면 좋은 무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천진으로의 유학생 파견은 그 목적이 근대적 무기의 제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⁶⁷ 그러나 당시 강남제조총국과 더불어 청국 최대의 무기 제조 공장이었던 텐진 기기창의 무기 제조 수준도 세계적 수준에는 미

62 김기수의 『日東記遊』는 국사편찬위원회 간, 『修信使記錄 全』(1974)에 영인본이 실려 있다. 국역은 『국역 해행총재』(민족문화추진회, 1977)에 실려 있다.

63 송병기 편역, 『개방과 예측: 대미수교 관련 수신사 기록(1880)초』(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95쪽.

64 李憲柱, “제2차 修信使의 활동과 朝鮮策略의 도입,” 『한국사학보』 25 (2006), 285-325쪽. 한편, 조사시찰단에 관한 연구는 다음에 자세하다. 허동현, “1881년 朝土視察團의 활동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66 (1995), 1-41쪽.

65 고종은 1880년대 들어서도 일본에 대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제2차 수신사 김홍집과의 대화에서도 고종은 일본의 교활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고종 17년 5월 28일조를 참조.

66 영선사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權錫奉, “領選使行에 對한 一考察: 軍械學造事를 中心으로,” 『역사학보』 17·18 (1962), 277-312쪽; 김연희, “영선사행 군械학조단의 제평가,” 『한국사연구』 137 (2007), 227-267쪽.

67 『승정원일기』, 고종 18년 11월 4일조.

치지 못했다. 조선의 유학생들이 방문하던 당시의 텐진 기기창은 주로 서양식 총기의 탄약 제조 등에 주력했을 뿐, 총기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였다.⁶⁸ 기기창의 동국총판(東國總辦) 반준덕(潘駿德)도 서양식 총기 제조의 어려움을 김윤식에게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여기 있는 기기(機器)는 모두 서양인들이 만든 것이다. 중국인은 매일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양의 총포(鎗砲)는 중국인들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소비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서양에서 구입하는 편이 비용이 덜 든다.⁶⁹

그가 조선 유학생들의 기술 습득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청국의 근대적 병기 제조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음은 예상 가능하다.⁷⁰ 이처럼 당장의 군사적 무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력이 소요되는 근대적 병기의 제조보다는 서양으로부터 병기를 직접 수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반준덕의 권유는 김윤식을 좌절시켰음에 틀림없다. 일본의 포함 외교에 의해 국제 사회에 내던져진 조선이 근대적 병기 제조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서양으로부터 병기의 구입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가 조선을 엄습하던 시대였다. 조사시찰단의 활동이 마무리되어 박정양, 이원회, 이현영, 홍영식 등이 조선에 귀국했을 때, 일본에서 청국으로 건너가 이홍장과 조선 문제를 협의하고 귀국한 어윤중은 고종에게 춘추전국시대가 소전국시대라면 작금의 세계는 그보다도 더 가혹한 대전국시대라고 말하고, 영국의 국세가 융성한 것은 해군이 강성하기 때문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의 지세 또한 영국과 비슷하기에, 조선도 하루 빨리 해군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⁷¹ 그의 주장이 현실화된 것은 1894년 영국에서 해군 교관들을 초빙, 근대적 해군의 건설을 계획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끝이

68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清關係の研究』(東京: 塙書房, 1969), 360쪽.

69 국사편찬위원회 편, “陰晴史上”, 『從政年表・陰晴史 全』(1971), 39쪽.

70 반준덕은 조선 유학생들이 서양의 기기 제조술과 관련된 학문과 기술을 익힐 능력이 되지 못하고, 혹시 익히더라도 재정이 빈약한 조선은 비싼 기기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유학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연희, “영선사행 군계학조단의 재평가”, 243쪽 참조.

71 국사편찬위원회 편, “從政年表”, 『從政年表・陰晴史 全』(1971), 122쪽.

발발한 청일전쟁은 결과적으로 근대적 해군 창설의 꿈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것은 사실상 조선에서의 군사적 근대화의 불운한 결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5. 결론

1811년 조선이 일본에 최후의 통신사를 보낸 이후 단절되었던 조일관계는 1876년 일본의 대조선 포함 외교에 의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약을 둘러싼 외교적 인식의 차이는 물론, 양국의 군사력과 군사 기술은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 위협을 거치며 종래와는 크게 변화해 있었다. 메이지 일본은 막번체제의 해체 과정을 통해 막대한 양의 서양식 병기를 수입했고, 조선은 서양과의 무력 충돌을 통해 군사력의 증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강화도조약 이후 조일 사이의 외교가 양국의 변모한 군사력과 군사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메이지 초기의 일본은 포함 외교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조선 강압 외교를 밀고 나갈 만큼 군사력과 군사 기술이 압도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고민이 있었다. 당시 일본의 군사 기술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후발국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은위병행’ 정책은 그 같은 일본의 군사 기술의 한계가 바탕이 되었다. 즉, 근대적 병기를 대조선 외교의 위압적 수단만이 아니라, 대조선 외교의 호의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선에 청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배제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조선에 제공할 수 있었던 군사 기술의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것은 병기의 제작 및 생산과 관련된 기술적 내용은 배제된 채, 서양산 병기의 제한적 공급과 운용에 머물러 있었다.

본고를 통해 우리는 메이지 일본이 ‘후발국’으로서의 군사 기술적 한계를 어떻게 자각함과 동시에 그것을 대조선 외교의 전략적 수단으로 극대화시켰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포함 외교 이후 메이지 일본의 군사 기술 원조에 조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그것은 후속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Japan's Military Assistance and Diplomacy to Joseon, 1876-1883

KIM Sung-keu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illustrates Japan's military assistance and diplomacy to Joseon, 1876-1883. Although Meiji Japan's gunboat diplomacy to Joseon was supported by strong military power, it was still a risky enterprise. Meiji Japan was able to arm itself by accepting large quantities of Western weaponry during the civil war. However, it did not attain the technological level to produce modern weapons or build a modern arms industry. Meiji Japan earnestly adopted Western military technology by employing foreign teachers. Simultaneously, they approached Joseon with a proposal to provide military assistance. However, the level of military technology in Meiji Japan was not high enough to assist Joseon's military modernization. After Japan's gunboat diplomacy to Joseon, Japanese politicians supplied Western weapons such as guns and a small steam ship to Joseon, which were utilized to achieve diplomatic advantage. This article shows how politicians in Meiji Japan realized their limits in military modernization, and tried to accomplish diplomatic goals by concealing their limit.

Keywords. scientific imperialism, technology transfer, weapon, diplomacy, Japan, Joseon